# 색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첫 삽

## 하루 최대 340t 처리 가능… 2024년 1월 가동 목표
## 봉개 시설 용량보다 3배 크고 20억 인건비 절감도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공사가 9일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에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색달동 3만4737㎡ 부지에 들어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처리 최대 용량이 340t으로,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시설 용량(110t)보다 3배 크다.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210~230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다.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은 오는 10월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제주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서귀포시 색달동 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오는 2024년까지 봉개동 시설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이다. 이 시설에는 반입·전 처리시설을 포함해 ▷혐기성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이듬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쓸 수 있어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공해 도민과 함께 쓰레기 걱정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텐트치기 딱 좋은 날씨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가운데 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에 야영객들이 텐트를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안심주택' 내 집 마련 신호탄 될까

## 원 지사, 토론회 기조연설
## 정부 공시지가 오류 지적도
## 내 집 마련 대안 제안 주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안심주택 정책 추진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될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안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토론회 주제도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 정책'으로 정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주거 정책의 방향들로 '안심주택, 안심월세, 안심대출, 안심세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앞서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지적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4월 18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시스템의 개선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원 지사의 기조연설 후에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이어가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안심주택·안심월세 제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지역 REC 대금 정산 체계 개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 시간대 별 SMP 적용 변경
## 실제로 낮은 금액 한계 有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대금 정산 방식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C 대금을 정산할 때 시간대 별 SMP(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월평균 SMP를 적용해 REC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정산이 이루지는 구조적 한계를 있었다고 위성곤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제주지역의 REC 정산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육지와 제주지역 간 REC 대금 정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돼 왔다"라며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정산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대 별 SMP 적용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다음달 안에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 제주시 1500여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따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기준 적합이 예상되는 1500여 가구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가 추진된다. 이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국민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기존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직권으로 추가 보장을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해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 특별생계비 등 제주시 자체사업과 연계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의 경우 빠른 시일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 노인장려금 지원 업체 등 고용실태 조사

## 제주시 190여개 업체 대상
## 30일까지 최저임금 등 조사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고용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관내 190개 사업체·374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조사를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원사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형태 등 사업체의 어르신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 어르신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윤형기자

# 하절기 농어촌민박 방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어촌민박 하절기 안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민박 660개소(제주시 360·서귀포시 300) 대상 표본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가스·전기시설 점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보완 조치 및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모집
교육시간 19시~22시
교육내용 전기(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 의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 의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 의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